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중국권역별·성별연구단 임민경 연구원
2. 출장기간: 2010년 11월 18일 ~ 11월 20일 (2박 3일)
3. 출장지: 중국 상하이(上海)
4. 출장목적:
 - 경인사 협동연구 추가조사(중국미래내수시장형성전략과 우리의 시사점), 자료수집

II. 출장일정

일자	출장지	방문 기관 및 일정
2010.11.18 (목)	인천 출발	- 인천출발, 상하이 도착(KE893) - 상무부 산하 중국산업이전촉진센터 면담
2010.11.19 (금)	상하이	- 코트라 상하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면담 - 중국각성·시·자치구연합회관(랴오닝상회) 방문
2010.11.20 (토)	상하이 출발	- 자료수집 - 상하이출발, 김포도착(KE2816)

III. 활동 내용

1. 상무부 산하 중국산업이전촉진센터(中國産業轉移促進研究中心)

- ☐ 일시/장소: 2010. 11. 18 오후/상하이시 차오허징 개발구
- ☐ 면담자: 순타오(孫韜), 천예(陳燁) 담당자

□ 주요내용: 중국 화동지역의 산업이전현황과 정책

- 상무부 산하 산업이전촉진센터는 상무부 외자촉진처와 상하이시 무역위원회 및 차오허징(漕河泾) 개발구의 공동 투자로 설립되었으며, 주로 과포화 상태에 이른 화동지역의 기업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- o 현재 중국정부의 산업이전 중점유치지역은 안후이, 간쑤, 구이저우, 지린, 헤이룽장, 허난, 후난, 장시, 산시, 산시, 윈난, 충칭, 쓰촨, 청두, 푸장옌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구성됨.
- o 중서부 지역의 산업이전 중점 도시로는 청두, 충칭, 우한, 시안, 정저우, 난창이 있으며 안후이성 완장도시군에서는 허페이, 마안산, 안칭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임.
- o 안후이성 허페이는 90년대 인재유출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였고 수해 가능성이 높아 자연적 조건도 열악한 편이 속함. 그러나 편리한 물류환경과 토지가격을 포함한 낮은 인건비로 인해 최근 안후이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외상기업이 증가하고 있음. 예> 유니레버
- 현재 산업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서부 성회(省會)를 중심으로 이동하기 원함. 주요 원인은 전체적으로 미발달 지역에 속한 중부에서 기술인재를 비롯한 노동력 보장이 비교적 가능한 도시이기 때문임.
- o 본 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총 이전액은 114억 위안이었으며, 2010년 상반기에는 9개 회사(총 이전액 18.9억 위안)가 이전했으며 8개 회사(총 이전액 10.46억 위안)는 마지막 협상단계에 있으며, 9개 회사(50억 위안 규모)가 초기 협상단계에 있음.
- 현재 상하이시에서 산업이전을 장려하는 기업유형은 고오염, 저효율, 노동집약형 기업임. ‘先개혁 後이전’의 논리에 따라 먼저 기술개혁을 요구하되 만약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이전을 장려함.
- o 단 정부에서 기업이전을 강압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으며 시장기능을 중시한다는 원칙임. 희망이전도시도 기업의 의사에 따라 결정함.
- 산업이전의 절차는 우선 이전희망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서 시작됨. 기업의 수요에 따라 본 센터에서 시장조사 및 기업이전 리스크에 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

하며 이전대상기업과 이전희망도시 정부기관과의 연계를 마련함.

- o 최근 上海通標(SGS)라는 상하이 로컬 회사의 충칭 이전이 성공사례로 꼽힘. 본 회사의 이전 희망지인 충칭시 정부와의 면담을 주선하고, 현지고찰을 진행한 결과 SGS는 충칭시 이전을 결정하였음.
-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산업이전은 과거 기업발전에 중점을 맞춘 구도에서 산업구조 발전으로 초점이 이동할 것임. 각 도시별로 정해진 중점유치산업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군의 기업이전을 장려할 것임.
- 현재 본 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외국기관으로는 독일의 중소기업연합회를 포함해 다수의 미국, 유럽계 정부 및 민간기관이 있음. 그러나 아직 한국기관 중에는 없음.
- o 외상기업의 경우, 주로 상하이 시에 위치한 자국기관을 통해 본 센터와 연결이 됨. 반면, 한국회사의 경우 실제로 기업이전의 의사가 있어도 어느 기관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얻어야 할 지 모름. 즉,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함.

2. 코트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방문

☐ 일시/장소: 2010. 11. 19 오전/상하이시

☐ 면담자: 코트라 상하이KBC 정준규 차장

☐ 주요내용: 상하이 내 한국회사의 산업이전 관련 업무관장 및 현황

- 현재 상하이KBC는 화동지역 한국회사의 기업이전을 업무영역에 포함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재 상하이를 포함한 화동지역 내 한국회사의 중서부 지역 산업이전을 계량적으로 수치화한 바는 없으며, 구체적인 이전사례도 아직 정리된 바는 없음.
- o 현재 규모가 큰 한국기업(주로 의류업) 중 생산단가 절감을 이유로 이전을 희망하는 케이스가 있음. 단, 지방정부에서 세수를 이유로 대기업의 이전을 놔두지 않음.
- o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전비용의 발생으로 역시 쉽게 이전을 결정하지 못함.

- 결국 산업이전에 대한 수요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현실적인 제약 상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함. 가시적인 돌출이 없기 때문에 관련 fact를 파악하기도 힘이 든 상황임.

o 최근 이전한 케이스로 '농심'이 있으나, 이는 상하이 시내에서 시외로 빠져나간 경우임.

- 향후 12.5 시기 산업이전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더불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봄. 그러나 현재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기관 중 산업이전을 희망하는 한국회사를 대상으로 특화된 업무는 부재함.

3. 중국 각성·시·자치구연합회관(랴오닝상회) 방문

□ 일시/장소: 2010. 11. 19 오후/상하이시

□ 면담자: 상하이시 랴오닝상회 장옌옌(張艷艷) 총리

□ 주요내용: 상하이 동북상인회의 주요 기능 및 현황

※ 본 면담내용 및 관련 사진은 중국권역별·성별연구단 홈페이지의 성별이모저모에 게재됨.

(http://csf.kiep.go.kr/www/user/cprg/emojmo/emojmo_view.jsp?seq_n=28)

- 현재 상하이시 랴오닝상회에는 칠 팔십 개의 랴오닝 회사가 등록되어 있음.

- 이들 본부는 랴오닝과 상하이에 있음. 단, 기업대표는 모두 랴오닝인이라는 특징이 있음.

- 종사 업종은 주로 철강, 요식업, 금융 방면이며 이 밖에 변호사도 상당수임./끝/